

듣기 대본 (1번 ~ 30번)

※ [1~4]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여자: 몸살 기운도 있고 목도 많이 아파요.

남자: 자, '아' 해 보세요. 음, 목이 많이 부었고 염증도 심하시네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여자: _____

2. 남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일 긴장하지 말고 잘해. 알았지?

여자: 네.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주할 생각을 하니깐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나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남자: _____

3. 여자: 어젯밤에 아마존 밀림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어요?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남자: 저도 꼭 보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드라마 봐야 된다고 고집해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못 봤어요.

여자: _____

4. 여자: 김 감독님, 국제 영화제에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남자: 올해는 예년에 비해 규모도 커지고 초청작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여자: 감독님 작품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도 워낙 호평을 해서 작품상을 수상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무척 아쉬웠습니다.

남자: _____

※ [5~7]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5. (3점)

여자: 안녕하세요. 상계동에 사는 주부 이경숙입니다. 저만의 살림 비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직접 채소를 키우는 건데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무공해 채소인 만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도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채소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때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면 그야말로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6. (4점)

여자: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훨씬 높는데요. 이것은 남성들이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평소 운전을 거칠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대부분 신중하게 운전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는 거죠.

7. (4점)

남자: 역사적으로 스포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표출해 왔습니다. 이를 스포츠 민족주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스포츠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포츠 속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스포츠 민족주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 [8~10]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8. (3점)

남자: 오늘은 양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가 피를 맑게 해 주기 때문에 동맥 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파에 또 하나의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의 매운 성분이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의 점액과 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물에 씻지 말고 드시거나, 주무실 때 양파를 잘라서 머리맡에 두시면 좋습니다.

9. (3점)

여자: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은 몸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행복 물질이라고도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공부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요. 가끔 맨발로 걸거나 차분히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10. (4점)

남자: 한국의 전통 가구는 나무와 나무를 못이나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한국의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나무는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 속성이 있어서, 만약 이 나무를 딱 고정시킨다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그 형태가 뒤틀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나무를 고정시키지 않고 서로 맞물려 놓으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도 그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11~13]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1. (3점)

여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좋은 생활 습관이 성공을 낳는다’고 하시면서 ‘메뉴를 정할 때 상대방을 기다려 주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 네. 메뉴를 먼저 정하지 않는 게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러한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상대방을 기다려 주는 것과 같은 노력을 통해 그런 태도가 몸에 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4점)

남자: 나무 심기 캠페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강한 동기가 없다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무 만들기’와 같이 개인이 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3점)

여자: 우리 부장님은 유능하시긴 한데 부하 직원을 좀 차별하시는 거 같아요. 몇몇 사람만 편애하고요.

남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능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대한다면 모를까, 부장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능력이나 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동등하게만 대우한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14~15]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각 4점)

14.



<대본>

① 남자: 신경미 작가님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자: 고전 소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서 쓴 책입니다.

② 남자: 종류가 하도 많아서 어떤 책이 좋을지 고르기 정말 힘들어요.

여자: 이 책이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책이라던데 한번 읽어 보실래요?

③ 남자: 저, 이 책 내용을 좀 봤으면 하는데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요. 좀 볼 수 없을까요?

여자: 아, 그거요? 견본품이 있으니깐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④ 남자: 이렇게 직접 만나 뵈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쓰신 수필집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 행복하세요.

15.



<대본>

- ① 남자: 평소에 산을 자주 타나 봐요. 하나도 힘든 기색이 없네요.
 여자: 아니에요. 사실 저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② 남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자: 위급할 때 이렇게 대피하면 되는군요.
- ③ 남자: 자, 그렇게 팔 힘으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에 발을 디딘 다음 힘껏 밀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자: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팔에 힘이 들어가요.
- ④ 남자: 오른쪽 상단 부분은 색이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깐 왼쪽에 한 번 더 덧칠을 하면 어떨까요?
 여자: 일부러 명암을 대비시키려고 한 건데 이상한가요?

※ [16~18]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6. (3점)

여자: 카메라를 사야 한다더니 뭘 살지 결정했어요?

남자: 아직요. 전문가용 카메라 말고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사려고요. 그런데 카메라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카메라 회사도 많은 데다가 카메라 모델도 수십 가지가 넘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자: 그럴 거예요. 제 경험상으론 제일 먼저 가격대를 정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게 범위를 좁힌 다음에 디자인이나 기능을 따져 봐야죠.

남자: 아, 네. 그게 좋겠네요.

17. (3점)

여자: 지난번 회사 야유회 비용 정산은 다 끝났어요?

남자: 네. 지출 내역은 다 정리했는데요. 영수증 정리하다가 경품 구입 영수증이 안 보여서 찾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카드로 구입한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여자: 그러게 항상 영수증을 잘 챙겨야죠. 지금 바로 신용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 날짜와 장소를 이야기하면 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서 보내 줄 거예요. 영수증 오는 대로 비용 정산도 빨리 끝내세요.

남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 (4점)

여자 1: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매립지를 산업 단지로 조성하자는 건데요. 그 주장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추구해 온 ‘녹색 도시’의 이미지는 어디 가고, 산업 단지가 웬 말입니까?

남자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자 2: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다수결로 정할 건데 논쟁을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남자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결정하도록 하죠.

※ [19~20]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9. 여자: 바다가 없는 충북 괴산군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이 지역 특산물인 절임 배추를 만들고 난 후에 생기는 소금물을 버리지 않고, 비닐하우스 속 육지 염전에서 소금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겨울철 제설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지 염전은 제설용 소금도 공급하고 소금물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박은주입니다.

20. 남자: 국내에서 인공 증식한 새끼 늑대 두 마리가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새끼 늑대 형제는 지난 2000년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토종 늑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2세인데요. 두 마리 모두 건강한 상태로 적응 훈련을 마치고 방사됐습니다. 멸종위기복원센터의 김영수 박사에 의하면 어미 개체는 러시아에서 들여왔지만, 새끼들의 경우 국내에서 자체 증식한 개체라는 점에서 이번 방사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KBC 뉴스 민호철입니다.

※ [21~22]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성공하는 기업가가 꼭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다면 저는 균형 감각을 첫째로 꼽고 싶습니다. 기업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는 시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창업할 당시 시장 상황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생산비를 줄이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맞는 듯 보였지만 우리 제품은 점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품질에 소홀해진 것이었죠. 제가 만약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면 비용 절감에 따른 품질 저하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겠죠.

21.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남자가 자기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 [23~24]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이 기사 봤어요? 어떤 가족 이야기인데요. 환경 보호를 몸소 실천 하겠다고 1년 가까이 전기도 없이 살고 있대요. 여기 보세요. 음, (기사를 읽는 톤으로) “이 가족은 일회용품 및 각종 화학제품의 사용을 극도로 줄였으며 심지어는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도 차단하였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기는 한데 좀 무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남자: 그 사람들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거나 뭐,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시도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보려고 한 의도였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바로 우리 둘의 화제가 되었잖아요. 이 기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2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4.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5~26] 다음 인터뷰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박사님, 세상을 놀라게 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다 대중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술을 사용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화상 전화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청각에만 의존하는 음성 전화보다 시각을 함께 사용하는 화상 전화가 통화자들의 사이를 더 가깝게 해 주니까 곧 음성 전화가 화상 전화로 대체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화에 바랐던 건 오히려 적절한 거리의 유지였고 이 때문에 화상 전화는 대중화되지 못한 거죠.

여자: 결국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군요.

남자: 그렇죠.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기술만이 대중화되어서 널리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25.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6.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7~28] 다음의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선거 때마다 여론 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공표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표 금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임박했을 때 여론 변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비공식적인 경로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남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투표일에 즈음하여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선거일 전날 결과를 공표할 경우 우세한 후보에게 더 표가 쏠린다거나 열세의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6일 전부터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8. ‘여론 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9~30]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 이제 세계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현지화’ 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화 관점에서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고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의 기호가 유사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지화’ 관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고 비판하면서,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이 ‘표준화 전략’이나 ‘획일화 전략’이 아니라 ‘차별화’ 혹은 ‘현지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나라마다 이념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현지화 전략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9. 남자의 말 앞에 나온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30. 남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